

1998년도 에너지業界 新年人事會 개최

에너지·자원 산업계 재도약 다짐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월 9일 鄭海滂 통상산업부 장관(행사당시)을 모시고 한전 본사 후생동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에너지관련 단체 주요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도 에너지業界 新年人事會를 개최하였다.

文熙晟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IMF 사태로 국가경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에너지산업인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하며, 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鄭海滂 통상산업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자원 산업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선도적 역

할을 다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경영개선을 통한 가격상승 요인을 흡수하여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8년도 제1차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홈페이지 설치 제안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98년도 제1차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협회보 편집방향, 사무국 홈페이지 개설 필요성, WEC

휴스턴총회 참가, WEC 기후 변화 보고서 활용계획 등 에너지협회의 98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

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문희성 에너지협회회장, 선우현범 기술자문위원장, 최기련 부위원장, 홍성안, 이지현, 김삼곤, 전홍석, 박달영 위원, 장기현 간사, 협의회 최복희 부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